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642

2018년 2월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연구보고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지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이 봉 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지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Task for Teaching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in the Business Korean Education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이 봉 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지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지도교수 장 경 현

이 연구보고서를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청구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이 봉 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봉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경 현 인

2017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차

ABSTRACT

1.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 절차와 방법 ---------- 2

1.3. 선행 연구 검토 ---------- 3

2. 이론적 배경 ---------- 6

2.1. 호칭어·지칭어의 정의 ---------- 6

2.2. 호칭어·지칭어의 형태적 특성 ---------- 8

2.3. 호칭어·지칭어의 분류 ---------- 9

2.4.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유형과 변화 양상 ----- 14

2.4.1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유형 ---------- 14

2.4.2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변화 양상---------- 17

3.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분석 ---------- 18

3.1 호칭어 분석 ---------- 19

3.1.1 직함형 호칭어 ---------- 21

3.1.2 이름형 호칭어 ---------- 23

3.1.3 기타 호칭어 ---------- 24

3.2 지칭어 분석 ---------- 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1 직함형 지칭어 ---------- 26

3.2.2 이름형 지칭어 ---------- 27

3.2.3 일반 명사형 지칭어 ---------- 27

3.2.4 대명사형 지칭어 ---------- 28

4. 직함형 호칭어·지칭어 교육 개선 방안 ------- 29

4.1. 개선방안 ---------- 29

4.2. 단원 구성의 예 ---------- 31

5. 결론 ---------- 43

참고문헌 ---------- 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목차

<표 1>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의 정의 ---------- 6

<표 2>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의 유형 ---------- 10

<표 3> 호칭어·지칭어 유형과 사례 ---------- 13

<표 4> 분석 대상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 19

<표 5>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유형별 호칭어 제시 현황 ---------- 20

<표 6>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호칭어 유형과 빈도 ---------- 22

<표 7>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이외의 호칭어 유형과 빈도 ---------- 23

<표 8>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유형별 지칭어 제시 현황 ---------- 25

<표 9>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지칭어의 유형과 빈도 ---------- 26

<표 10>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이외의 지칭어 유형과 빈도 ---------- 28

<표 11> 단원의 구성 요소 ---------- 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Task for Teaching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in the Business Korean Education

Lee, Bong Hoon
Prof. Jang Gyeong-hye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Business Korean learners by suggesting the effective method for teaching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For the purpose, this paper reviews the system and selection principle of Korean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and analyzes Business Korean textbooks to figure out what's the problem of the subject in the education field.

It is well-known that Korean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are quite complex and choosy. Particularly, Business Korean learners complain of difficulty to use appropriately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in their life at work because they are more complicated than other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teach proper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to Business Korean learners in order to build the favorable personal relationship as well as to do business through the fluent communication. Existing Business Korean textbooks, however, neither embody the systematic teachin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ethod nor include a variety of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which are actually being used in the real communicative situation.

Thus this paper proposes to embed an independent unit(lesson) for the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in the Business Korean textbook as an improvement measure. Along with a sample unit, detail contents of the unit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variety of title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in the dialogue passages which reflect the real communicative situation in the office. Second, the rule to choose proper terms of address and reference should be added. Third, the agreement with honorific expressions also needs to be taught in the grammar part or exercise activity. Finally, culture education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unique organization culture of Korean compani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호칭어는 대화 상대방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키고 대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칭어는 화자와 지칭되는 대상과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호칭어, 지칭어는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화자 간 혹은 대화자와 지칭자 간 친근감의 정도와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하고(이윤진, 2006: 291),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강소산・전은주, 2013: 364). 서열을 중시하고 관계지향적인 대인관(對人觀)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화 중에 사용되는 호칭어, 지칭어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해영(2009: 216)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외국인의 발음, 어휘나 문법의 오류보다 화용적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는 단지 언어 지식의 부족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개인의 성격에 대한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호칭어・지칭어는 매우 복잡하고, 그 선택이 까다로워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이 쉽게 습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현재 한국 기업에 근무하여 비즈니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직장 생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는 여타 호칭어, 지칭어보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는 모어 화자인 한국인 신입사원들도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호칭어・지칭어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즈니스 한국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재에서 호칭어·지칭어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으며, 그나마 제시된 호칭어, 지칭어 사례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특히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체계와 사용 방법을 탐구하고,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호칭어·지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올바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절차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호칭어와 지칭어의 정의와 유형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지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재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공식적인 교육 내용이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호칭어, 지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재 분석에서 호칭어는 대화문 위주로 파악하였고 그 사용 범위가 넓은 지칭어는 읽기 지문을 제외한 모든 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어서 한국 기업에서 실제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호칭어, 지칭어 사용 실태를 관련 문헌과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언어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생존과 발전이 어떤 조직보다 뚜렷한 기업에서 사용되는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는 여타 호칭어, 지칭어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내용을 담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모국어 화자들의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 형태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1.3.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는 박갑수(1989), 황보나영(1993), 이익섭(1994), 박정운(1997), 왕한석(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60년대 이후 사회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Brown과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써의 호칭어 이론, 그리고 이후의 이론적 발달을 소개하고[1] 한국어 호칭어가 갖는 개별 언어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박갑수(1989)에서는 호칭과 지칭의 개념을 구분하고 호칭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였다. 그는 호칭어의 유형 분류를 통해 호칭의 올바른 사용을 제시하였지만 그가 제안한 호칭의 형태는 현재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예를 들어 남자를 호칭하는 말을 '남정(님)'이라고 제안하거나 젊은 남자와 여자를 '총각(도령), 처녀(처자), 낭자, 소저'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칭들은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황보나영(1993)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통하여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여러 하위 체계들로 세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호칭과 관련된 종결어미 선택 등과 같은 경어법 체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 스스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 지역 대학 사회라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이 결과를 통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익섭(1994)은 저서 <사회언어학>에서 호칭과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을 권세

1) Brown의 호칭어 이론은 Brown and Gilman(1960), Brown and Ford(1961)에 제시되었고, 이후의 호칭어 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대표적인 연구는 Ervin-Tripp(1969)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ower)와 연대(solidarity)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호칭 체계를 크게 대명사 호칭, 성명과 직함 호칭, 친족 호칭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각의 호칭에 대한 용법, 사용제약을 권세와 유대 그리고 연령, 사회적 지위, 장면 등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되어 선택되는지를 제시하였다.

박정운(1997)에서는 한국어 호칭어 체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는 호칭어 체계 분류에서 2인칭 대명사를 호칭어에 포함시켜 호칭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한국어 호칭 체계가 서구 언어의 호칭 체계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친근 호칭형으로의 전이 과정 비교를 통해 밝혔다. 그의 연구는 실증적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직관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왕한석(2005)에서는 호칭어는 비교적 단순한 언어 표현이면서도 모든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적 구성 성분으로 보았다. 특정한 호칭 사용에 의하여 화자가 호칭 상대방에 대해 갖는 지위가 쉽사리 식별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인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의 호칭어, 지칭어 연구는 최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선화(2002), 박상천(2004), 전혜영(2005), 강영(2006), 이윤진(2006), 고성환(2009), 강소산・전은주(2013) 등이 있다.

이선화(2002)에서는 길 묻기, 물건 사기 등의 특정한 공공 상황에서 한국어 표준 모어 화자의 호칭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조사에서 호칭어 선택 요인으로 상황의 격식성 여부, 청자의 성과 연령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한국어 호칭어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호칭 사용 경향을 제시하는데 그쳐 호칭어 전반에 대한 이해에 제약이 따르고, 지나치게 복잡한 호칭어 선택 조건 때문에 실제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박상천(2004)은 한국어 교재의 호칭 현황을 분석한 후, 실제 외국인의 호칭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고, 여기서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호칭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모어 화자의 다양한 호칭 사용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교육 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그쳤다는 제약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혜영(2005)은 호칭어 교육에서 가르칠 내용을 호칭어 유형, 사용 방식, 문화적 의미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업에서 운영할 과제로 문화적 의미 이해를 위한 과제, 호칭어 형태와 사용방식 이해하기, 역할극이나 비디오 자료를 이용한 활동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부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호칭어, 지칭어의 선택과 그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의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영(2006)에서는 한국어 호칭어 교육에서 호칭어에 담긴 문화적 배경들을 찾아내고 이에 기반한 학습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관계지향적 대인관 (關係指向的 對人觀)'[2] 등이 호칭어, 인칭대명사 사용 등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호칭어, 지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문화교육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윤진(2006)은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호칭어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시도하였다. 그는 대화자의 상호 관계, 친밀도, 공적 관계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호칭어를 선택하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도 구체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성산(2009)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호칭어·지칭어 교육의 문제점을 '씨'의 과다 사용과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호칭어·지칭어 제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상황 설정, 생략 가능한 호칭어·지칭어의 생략, '이름+씨' 대신에 '성+이름+씨' 형식의 사용 등을 제안하여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 교육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강소산·전은주(2013)에서는 대학기관 한국어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호칭어, 지칭어 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호칭어, 지칭어를 학습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위계 설명 그리고 가족형 호칭어, 지칭어의 체계적인 배열을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다른 선행 연구들과 같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2) 강영(2006: 36)은 관계지향적 대인관이란 '인간관계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친숙함이 형성된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이론적 배경

2.1. 호칭어·지칭어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 이르는 말'로 각각 정의되고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표 1 >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의 정의

연구자	정의
박갑수(1989)	지칭: 가리킴 말 호칭: 부름말
한갑수(1989)	호칭: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부름말, 호칭어) 지칭: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관계말, 지시어)
박상천(2004)	호칭: 화자가 대화 상대방을 면전에서 직접 부르는 말 지칭: 화자가 대화 상대방 혹은 제 3자를 가리켜 이르는 말 (2인칭 대명사 포함)
이윤진(2006)	호칭: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
이민(2008)	호칭: 직접 면전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 지칭: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말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포함)
고성환(2009)	호칭: 남을 부를 때 쓰는 말
강소산·전은주(2013)	호칭: 화자가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 지칭: 화자가 대화 중 자신, 대화 상대방, 제 3자를 가리키는 말

한국어 호칭어에 대하여 박갑수(1989)는 '부름말', 한갑수(1989)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박상천(2004)은 '대화 상대방(청자)을 면전에서 직접 부르는 말', 이윤진(2006)은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 고성환(2009)은 '남을 부를 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쓰는 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강소산・전은주(2013: 366)는 이처럼 다양한 호칭어 정의에서 ‘부르다’는 동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점에 주목하여 호칭어를 ‘화자가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정의하였다.

한편 지칭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호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따라서 지칭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 역시 많지 않다.

한갑수(1989)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 박상천(2004)은 ‘발화자가 대화 상대방 혹은 제 3자를 가리켜 이르는 말’이민(2008)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말’로 각각 정의하였다. 강소산・전은주(2013: 366)는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지칭어에 대한 정의를 ‘화자가 대화 중 자신, 대화 상대방, 제 3자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였다. 지칭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칭어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명사를 어떻게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박갑수(1989)에서는 대명사로 분류한 ‘너, 당신, 그대, 자네, 자기’ 등이 호칭이라기보다 지칭의 성격이 강한 말이라고 밝혔다. 박상천(2004)은 3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만을 지칭어에 포함시킨 반면, 이민(2008)과 강소산・전은주(2013)는 대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도 지칭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칭어, 지칭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호칭어 :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
지칭어 : 화자가 대화 중 자신, 대화 상대방 혹은 제 3자를 가리키는 말

한국어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이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두 개념이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호칭어로도 쓰이고 지칭어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선생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생님은 무슨 차를 드시겠어요? ' 에서 앞에 '선생님' 은 호칭어로 쓰이고 뒤에 쓰인 '선생님' 은 지칭어로 쓰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 사례를 영어에서는 'Mr. Kim (or Sir), what kind of tea do you want to drink?' 에서처럼 2인칭 지칭어 'you' 가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어에서는 2인칭 대명사 '당신' 이나 '너' 의 사용이 까다로워 앞에서 쓰인 '선생님' 이 뒤에서도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한 단어가 호칭어나 지칭어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쓰이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명확한 구분을 내릴 수 있다.

2.2. 호칭어·지칭어의 형태적 특성

한국어 호칭어·지칭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선택이 까다롭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호칭어·지칭어는 큰 틀에서 그 유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호칭어·지칭어 분류에 앞서 형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생님', '김영호' 등과 같이 보통명사나 고유명사가 단독으로 호칭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2) ㄱ. '김철수, 이영희'
ㄴ. '선생님, 사장님'
ㄷ.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위에서 (2 ㄱ)은 이름이, (2 ㄴ)은 직업 또는 직위가, 그리고 (2 ㄷ)은 친족관계 명칭이 독자적으로 쓰인 사례이다.

둘째, '김철수 선생님' 에서 '이름' 에 '선생님' 이 결합된 예와 같이 복합 형식이 호칭어·지칭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ㄱ. 김철수 선생님/사장님
김 선생님/사장님
김 할아버지/할머니
ㄴ. 김철수 씨, 김철수 군, 이영희 양
김 씨, 김 군, 이 양
철수 씨, 철수 군, 영희 양

(3 ㄱ)은 '성'이나 '이름' 또는 '성+이름'이 선행되어 직함명 및 친족명이 결합된 예이고, (3 ㄴ)은 '성'이나 '이름' 또는 '성+이름'에 의존명사 '씨, 군, 양'이 결합된 형식이다.

셋째, '의사 선생님'과 같이 직업명에 '선생님'이 결합된 형태이다. '의사'라는 직업명에 존칭의 의미로 일반 명사화된 '선생님'이 결합된 특이한 형태이다.

(4) 의사 선생님 / 간호사 선생님

2.3. 호칭어·지칭어의 분류

호칭어·지칭어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선행 연구자들에 의한 호칭어·지칭어 분류는 <표 2>와 같다.

박갑수(1989)는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칭을 크게 아홉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명+접사', '성명+조사'를 다른 형태로 구분하였고 '댁호(宅號)형'과 '외래어형' 등 일부 유형은 현재 언어 사용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익섭(1994)은 한국어 호칭 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크게 대명사 계열 호칭,

3) 고성환(2009: 34)은 호칭어, 지칭어의 이러한 복합 형식을 고려하여 '호칭어, 지칭어'라 하지 않고 '호칭 구성, 지칭 구성'이라고 표현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름이나 직함 계열 호칭, 친족 호칭으로 분류하고 기타의 호칭으로는 댁호(宅號)와 종자명(從子名) 호칭을 열거하였다.

< 표 2 >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의 유형

연구자	호칭어, 지칭어 유형	비고
박갑수(1989)	감탄사형, 성명-접사형, 신분명형, 친족어 대리형, 성명-조사형, 대명사형, 명사형, 댁호형, 외래어형	
이익섭(1994)	친족, 성명, 직함, 대명사, 기타	
박정운(1997)	친족어, 이름, 직함, 대명사, 통칭적(호칭), 기타, 영형	
이선화(2002)	직접 호칭: 친족어형, 이름형, 직함형, 명사형	2인칭 대명사: 2인칭 지칭어로 분류
	간접 호칭: 처소 지칭형, 주의끌기형, 생략형	주의끌기형: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박상천(2004)	직접 호칭: 친족명사형, 일반명사형, 직위결합형, 이름결합형, 어린이 매개형	2인칭 대명사: 2인칭 지칭어로 분류
	간접 호칭: 처소형, 생략형	
전혜영(2005)	친족형, 이름형, 직함형, 일반 명사형, 감탄사형,외래어형, 기타	
이민(2008)	명사형: 친척어형, 친척어의 확대 사용형, 직함형, 직함의 확대 사용형, 일반어형, 이름형	
	대명사형: 2인칭 대명사 '여러분'	대명사형 지칭어: 1인칭, 2인칭, 3인칭
	감탄사: '여보' 계(여보세요?), '이애' 계 (얘)	
강소산·전은주(2013)	가족형, 이름형, 대명사형, 직함형, 일반명사형, 자녀이름 매개형, 주의 환기형	

박정운(1997)은 친족어 호칭어,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통칭적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기타 호칭어, 영형 호칭어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통칭적 호칭어는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할아버지, 아주머니, 이모, 언니', 그리고 '총각, 아가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젊은이’ 등 세 가지 하위 유형을 일컫는다. 기타 호칭어는 별명형 호칭, 호를 통한 호칭, 청자의 출신지역, ‘여보세요’, ‘이봐요’ 등을 말한다. 영형 호칭어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호칭어의 사용을 피하고 호칭어의 사용 없이 청자의 관심을 화자 쪽으로 유도시키는 경우를 ‘영형 호칭어’라 정의하였다.

이선화(2002)에서는 호칭어를 크게 직접 호칭과 간접 호칭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하위 유형으로는 직접 호칭에 이름형, 친족어형, 직함형, 명사형을 포함시키고, 간접 호칭에 처소 지칭형, 주의끌기형, 생략형을 포함시켰다.

박상천(2004)은 친족 명사형, 이름 결합형, 직위 결합형, 어린이 매개형, 일반 명사형, 처소형, 생략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처소형 호칭어는 낯선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로 ‘여기요’, ‘저기요’ 등을 말하며, 생략형 호칭어는 박정운(2004)의 영형 호칭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전혜영(2005)은 친족 호칭어,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일반 명사형 호칭어, 감탄사형 호칭어, 외래어형 호칭어, 기타 호칭어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기타 호칭어에는 ‘마산댁, 수원댁’과 같은 댁호(宅號) 호칭어와 ‘김 씨, 김 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혜영의 호칭어 유형에서 대명사형 호칭어가 특별한 설명 없이 제외되어 있다.

이민(2008)은 크게 명사류, 대명사류, 감탄사류 등 품사 단위로 호칭어, 지칭어를 구분하였으나 세부 분류는 다른 연구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대명사형에서 2인칭 복수 대명사 ‘여러분’만 호칭어에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대명사는 지칭어로 분류하였다. 감탄사형은 ‘여보세요?’, ‘이봐’, ‘얘’ 등을 ‘여보’계와 ‘이얘’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호칭어에 포함시킨 ‘여기요’, ‘저기요’ 등은 제외시켰다.

강소산·전은주(2013)에서는 선행 연구의 호칭어 분류와 한국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가족형, 이름형, 대명사형, 직함형, 일반 명사형, 자녀 이름 매개형, 주의환기형 호칭어·지칭어 등 7개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를 정리해 보면 친족형 (가족형) 호칭어·지칭어, 이름형 호칭어·지칭어, 직함형 호칭어·지칭어, 일반 명사형 호칭어·지칭어는 선행 연구에서 공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호칭어·지칭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명사형 호칭어, 지칭어는 연구자에 따라 분류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2인칭 대명사는 영어의 'you'와 다르게 화자보다 윗사람인 경우 잘 사용하지 않는 등 제약이 많아 사용하기가 까다롭다(강소산·전은주, 2013: 369).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연구자는 2인칭 대명사는 호칭이라고 볼 수 없고 청자를 가리키는 말인 2인칭 지칭어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박갑수, 1989; 이선화, 2002; 박상천, 2004).[4]

또한 '여기요, 저기요'와 같이 낯선 관계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호칭어·지칭어도 학자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5] 본 연구에서는 분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밖의 호칭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호칭어·지칭어를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제외한 여타 호칭어, 지칭어의 유형별 특성과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첫째는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이다.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어, 지칭어이다(박상천, 2004: 22).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는 성과 이름이 함께 쓰이는 경우, 이름만 쓰이는 경우, 성만 쓰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에 높임의 뜻이 있는 의존명사 '님', '씨'가 결합되거나 손아래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의존명사 '군, 양' 혹은 호격조사 '아/야'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 예로는 '김수인 님, 김수인 씨, 수인 씨, 김수인 군, 수

---

4) 이선화(2002 : 17)는 다음의 예에서 2인칭 대명사가 형태적으로 호칭어로 보여도 대화의 맥락으로 볼 때는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기능이 아니라 가리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 너, 가서 물 가져와.
나) 당신, 정말 왜 이래?
위의 예문에서 (가)와 (나)의 '너'와 '당신'은 엄밀히 따져보면 대화 상대방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5) 박상천(2004)에서는 처소형 호칭어로, 전혜영(2005)에서는 감탄사형 호칭어로, 이윤진(2006)에서는 낯선 관계 호칭어로, 그리고 강소산·전은주(2013)에서는 주의 환기형 호칭어·지칭어로 부르고 있다.

6) 본 연구의 주제인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군, 김 군, 수인아’ 등이 있다.

< 표 3 > 호칭어·지칭어 유형과 사례

유형	호칭의 예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직함+님, 성+이름+직함+님, 성+직함+님, 성+이름+직함, 성+직함, 직함+선생님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	성+이름+씨, 성+이름+님, 이름+씨, 이름(별칭)+님, 이름+아/야
대명사형 호칭어, 지칭어	호칭어: 2인칭(여러분) 지칭어: 1인칭(저, 나, 저희, 우리)/ 2인칭(당신, 너, 자네, 자기, 님, 여러분/ 3인칭(그, 그분, 저분)
친족형 호칭어, 지칭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 (친족 확대형/자녀 이름 매개형 포함)
일반 명사형 호칭어, 지칭어	호칭어: 고객님, 선배(님), 학생, 젊은이 지칭어: 고객(님), 손님, 선배(님), 소비자, 바이어
주의환기형 호칭어	여기요, 저기요, 이봐요... 등

둘째는 대명사형 호칭어, 지칭어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대명사형 호칭어나 2인칭 지칭어는 서구권 언어와 다르게 한국어에서는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호칭어로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로는 ‘여러분, 당신, 자기, 자네, 너’ 등이 있는데 여러분을 제외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다.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로는 1인칭의 ‘저, 저희, 나, 우리’가 있으며, 2인칭에는 ‘당신, 너, 자기, 여러분’, 3인칭에는 ‘그, 그분, 저분’ 등이 있다.

셋째는 친족형 호칭어, 지칭어이다. 한국어의 친족형 호칭어, 지칭어는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매우 다양하다(강소산.전은주, 2013: 368). 친족형 호칭어, 지칭어는 가족이나 친척 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호칭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친족형 호칭어의 확대 사용 예로는 ‘아버님, 어머님, 언니, 오빠, 이모’ 등이 있다. ‘자녀이름+아빠/엄마’로 부르는 자녀 이름 매개형 호칭어, 지칭어도 친족형 호칭어, 지칭어에 포함시켰다.

넷째는 일반 명사형 호칭어, 지칭어이다. 상대방을 대우해 주는 격식성 있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일반 명사형 호칭으로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어르신, 학생, 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님’ 등이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직장 생활의 실제 대화 상황에서 쓰이는 일반 명사형 호칭어로는 ‘고객님, 주부님, 손님’ 등이 있고 지칭어로는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 더하여 ‘소비자, 동료, 바이어, 직원’ 등이 있다.

다섯째는 기타 호칭어이다. 기타 호칭어는 주의환기형, 감탄사형 혹은 처소형으로 불리는 ‘여기요, 저기요, 이봐요’ 등이다. 이 호칭어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화자가 청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화자와 청자가 사전 지식과 친밀도가 없거나 낯선 관계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상대를 마땅히 부를 말이 없고, 호칭이 있더라도 사용하기가 부자연스러울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2.4.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유형과 변화 양상

2.4.1.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유형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업이나 기관 등과 같이 주로 같은 사회 조직에 속해 있고(박상천, 2004: 21; 강소산·전은주, 2013: 369), 직위나 직책 등에 따라 서열 관계가 뚜렷하며 사적인 상황보다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호칭어, 지칭어이다. 따라서 다른 호칭어, 지칭어 형태보다 더 복잡하고 선택이 까다롭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직함 호칭어·지칭어의 체계와 유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직함 호칭어, 지칭어 체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직함을 둘러싼 몇 가지 개념, 즉 직업, 직위(급), 직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직함은 직위나 직책, 직무 따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위는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행정적 위치로 정의되며,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직책은 사전적으로는 ‘직무상의 책임’으로 정의되지만 기업에서 직책은 전체 기업 조직에서 하부 단위의 직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사용된다. 직책과 관련된 명칭으로는 ‘팀장, 실장, 본부장 또는 그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 등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서구 기업에서 사용되는 직책명인 CEO(대표이사), CFO(재무 책임자), CMO(마케팅 책임자), CTO(기술 책임자) 등의 영어 명칭이 다국적기업과 일부 대기업 등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직함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체계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생님’, ‘변호사님’ 등과 같이 직업명 자체에 접미사 ‘님’을 결합하거나 직업명에 ‘선생님’ 이 결합되어 호칭어 지칭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5) ㄱ. ‘선생님’, ‘변리사님’, ‘기사님’
‘김영호 선생님’, ‘이인수 변리사님’, ‘박철수 기사님’
‘김 선생님’, ‘이 변리사님’, ‘박 기사님’
‘김(영호) 선생’, ‘이(인수) 변리사’, ‘박(철수) 기사’
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위에서 (5 ㄱ)은 직업명에 ‘님’, (5 ㄴ)은 직업명에 ‘선생님’이 각각 결합되어 사용되는 형식이다. (5 ㄱ)에서 ‘성’ 또는 ‘성+이름’에 직업명이 결합되어 ‘김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의 사례나 호칭자 또는 지칭자가 화자에 비해 나이가 어릴 때 존칭 접미사 ‘님’을 생략한 ‘김 선생’ 또는 ‘김영호 선생’ 등이 있다. (5 ㄴ)은 직업명에 ‘선생님’이 결합되는 형식인데 의사, 간호사 등의 호칭이나 지칭에 사용된다.

다음은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인 ‘이사님’, ‘이부장님’과 같이 직위명과 연결된 호칭어, 지칭어이다.

(6) ㄱ. 이사님/부장님
ㄴ. 김길호 이사님/ 이수인 부장님
김 이사님/이 부장님
김 이사/이 부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ㄷ. 박나미 씨/ 김수인 님

나미 씨

(6 ㄱ)은 직위명에 존칭 접미사 '님'이 결합된 '직위+님' 형식이고 (6 ㄴ)은 '성'이나 '성+이름'이 선행되어 직위명과 결합된 형식이다. (6 ㄱ)과 (6 ㄴ)에서 제시된 예에서 호칭어·지칭어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존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직위+님'의 형태가 존대의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이름+직위+님', '성+직위+님', '성+직위'의 순으로 낮아진다.[7] (6 ㄷ)에서는 직위가 없는 일반 사원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의존명사 '씨'가 사용되는 반면 인터넷 기업 등 일부 기업에서는 '님'을 사용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이름+씨'의 형식은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성+이름+씨'에서 보다 친근한 호칭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성+이름+씨'의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7) 본부장님 / 실장님 / 팀장님

직함 호칭어·지칭어의 또 다른 형식은 '팀장님', '본부장님'과 같이 직책명과 결합된 형식이다. '팀', '본부' 등은 기업의 하부 조직으로 그 조직의 책임자를 직위로 호칭하지 않고 조직 단위의 책임자인 팀장, 본부장에 존칭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식이다.

이 형식 역시 '성+이름'이나 '성'이 선행된 결합 형식은 직위명 호칭 형식의 예와 동일하다. 직책명의 서열은 기업의 조직 형태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팀

7) 이익섭(1994: 209)은 성명과 직함을 더한 호칭어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4개로 분류하고 있다.

과장님 - 박과장님 - 박영호씨 - 영호씨 - 영호형 - 박과장 - 박씨 - 박형 - 박군 - 박영호군 - 영호군 - 박영호 - 영호 - 영호야

이들 중 직함을 사용한 호칭어는 '직위+님', '성+직위+님', '성+직위' 순으로 세 개가 등장하는데 '성+이름+직위+님'은 '성+직위+님'보다 더 격식적이고, 따라서 존대의 정도도 더 높다고 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실장→본부장의 서열을 보이고 있다.[8)]

2.4.2. 직함형 호칭어·지칭어의 변화 양상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언어는 그 언어 사회의 구조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도 사회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데(이민, 2008: 16), 직함형 호칭어와 지칭어는 여타 호칭어, 지칭어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함 상승 경향이다. 회사의 대표를 부를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사장님' 보다는 '대표이사님' 또는 축약형인 '대표님' 이라는 호칭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사장님' 이라는 호칭은 영세 가게 혹은 식당 주인을 부르거나 40대 이상의 낯선 남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통칭적인 호칭이 되어감에 따라 이들과 차별화된 호칭으로 불리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회장님' 이라는 호칭은 여러 계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그룹의 총수에게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호칭에도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된다. 또한 재벌 그룹을 포함한 국내 대표기업들의 직위에서 총수를 제외한 경영자의 최고위직은 '대표' 또는 '사장' 이 아니라 '부회장' 인 경우가 많다. 병원의 의사들도 '선생님' 이나 '의사 선생님' 대신 병원의 최상위 직이라는 의미인 '원장님' 혹은 '대표 원장님' 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호칭 상승 현상은 특히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직급(위) 체계의 단순화 추세에 따른 호칭어, 지칭어 단순화 현상이다. 전통적인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의 복잡한 직급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아예 직급 체계를 단일화하는 사례들도 보이고 있다. [9)]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하

8)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의 경우는 팀장→그룹장→파트장→임원 순으로 직책의 순위가 높아진다(한국경제매거진, 2017.2.22).

9)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은 기존의 직원 직급 체계를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임직원 간 상호 호칭은 'ooo님' 으로 통일하였으며(중앙일보, 2016.6.25.), 삼일회계법인은 직원 상호간에는 '선생님'으로 통일하고 임원 직위는 '파트너'로 단일화 하였음(매일경제, 2017.6.27.). SK텔레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 기업의 조직문화를 점차 세계 표준에 맞춰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이고 서열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직급 파괴, 직급 단순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 직원의 호칭을 '000 씨' 또는 '000 님'과 같은 단일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호칭어의 축약 현상이다. 직함 혹은 직업과 결합된 호칭의 특성상 직함(업)명이 길어 호칭이 불편할 경우 이를 축약해서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경향이다. 일종의 '언어의 경제성'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경향은 호칭어, 지칭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다.[10] 예를 들면 '대표이사(님)'의 경우는 대체로 '대표(님)'으로 호칭된다. '상무이사, 전무이사'는 꽤 오래 전부터 '상무, 전무'로 호칭 또는 지칭되어 왔다. 또 기업의 일반 직원들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김 부사장'을 지칭할 경우 '김 부'라고 표현하거나 동료 변호사들 간에 상대를 호칭할 때 '김 변호사' 대신에 '김 변'이라고 하는 것도 직함 축약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분석

본 장에서는 현행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호칭어, 지칭어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재에서 제시된 호칭어, 지칭어를 살펴보면 이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 목적 한국어 교재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와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은 직위를 팀장과 매니저로 단일화 하였고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하였음(한국경제매거진, 2017.2.22.).

10) 채서영·유원호(2008: 331)에 따르면 직함형 호칭어는 음절의 수가 적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음절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 호칭어로는 쓸 수 있지만 성이나 이름과 직함을 합쳐서 사용하기 매우 껄끄럽다고 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기 때문에 개발된 교재가 매우 적다. 비즈니스 학습자를 위해 출판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1, 2」, 「비즈니스 한국어」, 「성공의 지름길, 비즈니스 한국어」,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1, 2, 3, 4」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소개된 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가 2종이고 1종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한 교재이다. 대학에서 발행한 2종의 교재는 모두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 1권의 교재로 구성되었으며 민간기관의 교재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는 초급 교재이며 3권과 4권은 중급 수준 이상의 교재로 경영·무역 관련 분야의 실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교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3종의 교재를 기술의 편의상 가나다 순서에 따라 A교재, B교재, C교재로 부르고자 한다.

< 표 4 > 분석 대상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교재명	발행연도	저자	출판사
비즈니스 한국어	200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성공의 지름길, 비즈니스 한국어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지문당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1, 2, 3, 4	2014년	김선정 외	한글파크

3.1. 호칭어 분석

호칭어 분석은 각 교재의 듣기 지문과 함께 문법 혹은 어휘 연습 등에서 제시된 대화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빈도수의 분석에서는 하나의 듣기 지문 또는 기타의 대화문에서 나타난 호칭어는 종류 별로 하나씩만 계산하였다.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특성상 대화문의 구성은 대부분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호칭어의 제시도 직함형 호칭어의 비중이 높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야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구성을 보면 여전히 이름형 호칭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B교재나 C교재의 1권과 2권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와 같이 이름형 호칭어가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A교재와 C교재의 3권과 4권은 직함형 호칭어가 타 호칭어에 비해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어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 표 5 >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유형별 호칭어 제시 현황

	A교재	B교재	C교재			
			1권	2권	3권	4권
직함형 호칭어	8	5	1	3	17	16
이름형 호칭어	1	9	12	21	2	3
대명사형 호칭어	1			2		
친족형 호칭어	1			1		
일반 명사형 호칭어	3			1	2	
주의 환기형 호칭어			2	2	2	
계	13	14	16	30	23	19

한편 일반 명사형 호칭어는 A교재를 제외하고 제시된 사례가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학습자가 직장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의사소통 상황은 직장 내 구성원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직장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상황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 해외 바이어, 거래업체 임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의 의사소통 상황도 예상되는데, 이 때 대화 상대자의 호칭은 일반 명사형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사적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호칭어 제시도 외국인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화 상대자가 회사 외부의 사람이거나 동료일 경우 사용되는 호칭어는 '고객님', '선배(님)'와 같은 일반 명사형이다. 따라서 일반 명사형 호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도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1.1. 직함형 호칭어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호칭어에는 직위 결합형, 직책 결합형이 모두 제시되고 있으나 직업 결합형 호칭어는 A와 B교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고, C교재에서 '선생님'과 '교수님'이 각 권에서 한 차례씩 제시되고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직업 결합형 호칭어 형식에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위 결합형과 직책 결합형을 비교해 볼 때 세 교재 모두 직위 결합형 호칭어의 빈도가 높다. A교재에서는 직책 결합 호칭어의 비중이 전체 직함형 호칭어 8회 중 2회, B교재에서는 5회 중 1회, C교재는 3권과 4권에서 10% 미만의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다. 직함형 호칭어는 기업의 형태나 업종에 따라, 또 개별 기업마다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형식이 더 중요한 비중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기업에 근무하게 될 외국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직함형 호칭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기업 문화가 서열 파괴와 직급 단순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통적인 직위 결합형 호칭보다 직책 결합형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직위 결합형 호칭어보다 직책과 결합된 호칭어가 더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직위 결합형 형식에서는 A교재를 제외하고 '직위+님'의 형식이 '성+직위+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직위+님'의 형식이 호칭어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성+직위+님' 형식은 동일 직위의 대화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특정 대상자를 구별하여 호칭할 때 사용된다. 앞 장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회사의 대표를 호칭할 때 교재에서 제시된 '사장님'보다는 '대표이사님' 또는 이의 축약형인 '대표님'이라는 호칭어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 표 6 >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호칭어의 유형과 빈도

	A교재	B교재	C교재			
			1권	2권	3권	4권
직위+님	1	2		2	4	3
성+직위+님	4	1			5	1
성+이름+직위+님						
성+이름+직위						
성+직위	1	1			6	8
직책+님	1	1			1	1
성+직책+님	1					1
성+이름+직책+님						
성+이름+직책						
성+직책						1
직업명+님			1	1	1	1
성+직업명+님						
성+이름+직업명+님						
성+직업명						
계	8	5	1	3	17	16

‘김 대리’와 같이 직장 내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을 부르거나 동일 직위의 대화자 간에 사용되는 ‘성+직위(책)’ 형식은 실제 대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다. 기업의 조직이 피라미드형이어서 하위 서열의 구성원이 많고, 따라서 이들이 윗사람을 부르는 경우보다 상위 서열의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부르거나 동일 직급 구성원들 간 상호 호칭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직위(책)’ 형식은 A교재와 B교재에서는 단 한 차례, 그리고 C교재 1권, 2권에서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1.2. 이름형 호칭어

B교재에서 제시된 이름 호칭어의 대부분은 '이름+씨' 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C교재의 1권, 2권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 선행 연구자들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에 대한 호칭어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언어 상황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한국어 학습 교실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씨' 호칭이 지나치게 높은 빈도로 교재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박상천, 2004; 고성환, 2009; 강소산・전은주, 2013). 실제로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름+씨' 형식의

< 표 7 >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이외의 호칭어 유형과 빈도

유형		A교재	B교재	C교재			
				1권	2권	3권	4권
이름형 호칭어	성+이름+씨	1					
	이름+씨		8	12	21	2	2
	성+이름+님						
	이름+님						
	성+이름						
	이름		1				
	이름+아/야						1
	성+씨						
대명사형 호칭어		1			2		
친족형 호칭어	친족형						
	친족 대용형			1	1		
기타 호칭어				2	2	2	
계		2	9	15	26	4	3

호칭은 공식적인 대화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동료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그것도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호칭어는 A교재에서 제시된 '김창수 씨' 처럼 보다 격식적인 형태인 '성+이름+씨' 가 사용되거나(전혜영, 2005) 드물게는 '성+이름+님' 의 형식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용된다. 이들 형식은 직함이 없는 신입사원이나 대리 이하의 사원급 직원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된다.

'이름+씨' 형식에서 지적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발음상의 문제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이름이 한국어 발음으로 단음절이 될 경우 한국어 호칭에서 기피되고 있는 '성+씨'로 들린다는 점이다.[11] 예를 들어 'Bob', 'John', 'Tom' 등에 '씨'가 결합되면 '밥 씨', '존 씨', '톰 씨' 등이 되어 어딘가 어색하고, 심지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3.1.3. 기타 호칭어

분석 대상 교재에서 직함형 호칭어와 이름형 호칭어를 제외한 나머지 호칭어들의 제시 빈도는 매우 낮다.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다.

먼저 일반 명사형 호칭어를 살펴보면 '선배(님)', '김 선배'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대화자 간의 사적 대화에서 사용되는 호칭어가 눈에 띈다. A교재의 경우 미취업자인 후배가 취업 중인 선배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상황의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이다. '구직'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제시된 호칭이기 때문에 단원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호칭어가 공식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소비자(고객), 해당 기업의 종업원,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을 말한다. 부서 업무에 따라서는 공공기관과 언론기관도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어는 '고객님, 손님, 선배(님)' 등과 같은 일반 명사형 호칭어가 많다. 따라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일반 명사형 호칭어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더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명사형 호칭어는 2인칭 복수 대명사인 '여러분' 한 종류만 제한적으로 제시되

11) 한국어 호칭에서 '성+씨'는 막노동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간에 주로 사용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 있다. 직장 내에서 회의 중 여러 사람을 부르거나 강연자가 다수의 청중을 부를 때 사용될 수 있으나 교재에서는 연습문제 지문에서 독자에게 과제 활동을 지시할 때 제시되었다. 한국어에서 대명사형 호칭어 사용이 매우 까다로운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3.2. 지칭어 분석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지칭어 사용 분석은 읽기 지문을 제외한 모든 지문에서 나타난 지칭어를 대상으로 하되 자료의 방대함 때문에 한 단원에서 동일한 지칭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도 하나만을 빈도수에 포함하였다.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칭어는 호칭어와 달리 직함형, 이름형, 대명사형, 일반 명사형 지칭어가 고루 제시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일반 명사형 지칭어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제시된 반면, 친족형 지칭어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8 >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유형별 지칭어 제시 현황

	A교재	B교재	C교재			
			1권	2권	3권	4권
직함형 지칭어	47	31	8	24	22	50
이름형 지칭어	25	56	72	69	31	20
대명사형 지칭어	31	29	15	31	30	34
친족형 지칭어	0	12	7	18	2	5
일반 명사형 지칭어	56	52	18	59	78	94
기타 지칭어	0	0	0	0	0	0
계	159	180	120	201	163	20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1. 직함형 지칭어

직함형 지칭어에서는 세 교재 모두 '부장님'과 같은 직위 결합형과 '팀장님'과 같은 직책 결합형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B교재의 경우 '팀장님', '지점장님', '공장장님' 등 다양한 종류의 직책 결합형 지칭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A교재와 C교재의 경우에는 '팀장님' 한 종류만 제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 표 9 >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지칭어의 유형과 빈도

	A교재	B교재	C교재				계
			1권	2권	3권	4권	
직위+님	13	8	2	9	8	19	59
성+직위+님	10	4		7	4	7	32
성+이름+직위+님	9		1		1		11
성+이름+직위	1	-		1		1	3
성+직위	7	12	1	4	2		26
직책+님	1	3		1	2	2	9
성+직책+님						1	1
성+이름+직위책+님	1						1
성+이름+직책		1					1
성+직책	1				1	15	17
직위(책)		2			2	3	7
직업명+님		1	2	2	1	1	7
성+직업명+님			1				1
성+이름+직업명+님					1	1	2
성+이름+직업명	2						2
성+직업명							
직업명+선생님			1				1
직업명	2						2
계	47	31	8	24	22	50	182

직함형 지칭어에서는 '직위(책)+님'의 형식이 '성+직위(책)+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직위(책)+님'의 형식이 지칭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성+직위(책)+님' 형식은 동일 직위의 지칭자가 여러 명 있을 때 특정인을 구별하여 지칭할 때 사용된다. 호칭어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위 결합형 형식에서 회사의 대표는 B교재에서 제시된 '대표(님)'이라는 지칭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김 대리'와 같이 '성+직위(책)' 형식은 실제 대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칭 형식인데 비해 교재에서 제시된 빈도는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 결합형 지칭어의 경우 A교재에서는 기자, 대통령, 장관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직업명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B교재와 C교재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님'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직업 결합형 지칭 형식에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2.2. 이름형 지칭어

이름형 지칭어는 B교재와 C교재 1권과 2권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어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목적에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표 10> 참조). A교재와 B교재에서 제시된 이름형 지칭어는 호칭어 분석에서와는 달리 '이름+씨'보다는 공식적인 '성+이름'이 높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C교재에서 제시된 이름형 지칭어에서는 여전히 '이름+씨' 형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A교재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름형 지칭어의 비중이 높지 않으나 '성+이름', '성+이름+씨'와 같은 격식적인 형식이 제시되어 있어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형식은 직함이 없는 신입사원이나 대리 이하의 사원급 직원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므로 실제 대화 상황에서 그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2.3. 일반 명사형 지칭어

호칭어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명사형 지칭어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해관계자는 소비자(고객), 해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업의 종업원,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과 언론기관도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일반 명사형 지칭어가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교재에서 제시된 일반 명사형 지칭어는 '손님', '고객(님)', '소비자', '바이어', '신입사원' 등이 있다. 그러나 '사람', '남자', '여자', '친구' 등 사적인 관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형 지칭 형식이 지나치게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표 10 > 교재에서 제시된 직함형 이외의 지칭어 유형과 빈도

		A교재	B교재	C교재			
				1권	2권	3권	4권
이름형 호칭어	성+이름+씨	3	1			4	2
	이름+씨	3	9	58	53	14	15
	성+이름+님						
	이름+님						
	성+이름	18	30	1	1	3	
	이름	1	15	13	15	10	3
	이름+아/야						
	성+씨						
	소계	25	55	72	69	31	20
대명사형 호칭어	1인칭	24	17	15	25	25	30
	2인칭	4	10	-	6	5	3
	3인칭	3	2	-	-	-	1
친족형 호칭어	친족형	-	12	7	16	2	5
	친족 대용형	-	-	-	2	-	
일반 명사형 호칭어		56	52	18	59	78	94
기타 호칭어		-	-	-	-	-	-
합계		112	148	112	108	141	

3.2.4. 대명사형 지칭어

대명사형 지칭어는 대명사형 호칭어보다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교재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제시된 대명사형 지칭어에는 '저', '나', '저희', '우리' 등 1인칭 대명사가 가장 많고, 2인칭 대명사로는 복수형인 '여러분'이 대부분이며 '너'가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인칭 대명사로는 '그분', '저분', '그'가 제시되어 있다. 의미상으로 3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친구' 등은 형태적으로 '지시 관형사+일반 명사'여서 대명사형 지칭어에서 제외하였다.

4. 직함형 호칭어·지칭어 교육 개선 방안

4.1. 개선 방안

전혜영(2005: 129)은 한국어 호칭어·지칭어의 유형과 형태에 대한 학습을 특정한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에 끝내는 방식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학습 목표도 업무 수행 및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범주의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이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습득을 학습 목표로 하는 단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원은 어떤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묶은 학습 단위이다. 직장 생활에서의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 사용의 중요성과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소산·전은주(2013: 384)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도 중급 수준에서는 직장에서의 호칭어, 지칭어를 학습 목표로 두고, 직장 의사소통 상황에서 직위에 따른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와 청자 대우법을 가르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단원에 들어갈 주제나 내용,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단원의 지문은 직장에서 모어 화자들이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호칭어, 지칭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행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처럼 '이름+씨'의 과도한 사용이나 '사장님'과 같은 일반 기업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호칭어나 지칭어의 제시는 부적절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대리, 과장, 부장' 등 직위 결합형 형식보다는 '팀장, 실장, 본부장' 등과 같은 직책 결합형 형식의 호칭어, 지칭어가 더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일반 명사형 호칭어, 지칭어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호칭어, 지칭어의 제시는 대화문에서뿐만 아니라 연습 과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학습자들이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선택 규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사용되는 호칭어, 지칭어는 청자나 지칭되는 대상의 직위 혹은 직책, 청자와 화자의 연령, 친밀도, 공적 상황인가 사적 상황인가 등의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은 직장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문화도 다르고 한국어도 서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방법을 갖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법 교육 혹은 과제 활동에서는 호칭어, 지칭어와 호응되는 경어법이 학습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의 호칭어, 지칭어는 경어법과 호응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화자의 호칭 형태의 선택에 따라 문장 종결어미의 존대 정도가 달라진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호칭어, 지칭어와 종결어미의 호응을 익히게 하기 위한 설명과 과제가 문법 교육 항목이나 혹은 과제 활동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제 활동은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적절한 호칭어와 지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학생들 간의 역할극을 이용해서 직장 내에서 상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를 쓰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TV 드라마나 비디오 자료를 듣기 자료로 이용하여 자료에서 사용된 호칭어, 지칭어를 찾아서 넣는 빈칸 채우기나 내용과 관련된 질문지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준비하여 호칭어, 지칭어를 확인하는 활동 등도 권장할 만 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올바른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시키는 문화 교육이다.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가 다양하고 그 선택이 까다로운 이유는 한국 기업 고유의 조직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 방식에 함의된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국 기업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서열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와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는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행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중에는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 특성을 설명한 교재가 보이지 않는다. 분석 교재들 중 한 교재에서 '기업문화'라는 별도의 단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국 기업의 고유한 조직문화 특징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경영학 일반에서 다루는 기업문화의 개념 설명에 그치고 있다.

4.2. 단원 구성의 예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적절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 단원 구성은 <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어서 구체적인 단원 구성의 예를 제시하였다.

< 표 11 > 단원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학습 목표	적절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문법	호칭과 경어법의 대응관계 익히기
어휘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세부 형태와 종류 제시
과제 활동	직장 내 다양한 직책을 부여한 역할극, 비디오 자료 활용
문화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장에서 호칭과 지칭

학습 목표

- 단원 목표 : 적절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문법 : -(으)ㄴ/-는 편이다, -는 대로
- 어휘 :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 과제 :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하여 회의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듣고 말하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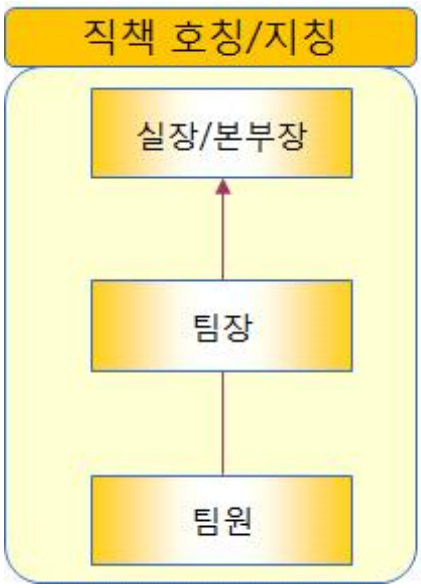
■ 다음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회사에서 여러분은 윗사람과 동료를 어떻게 부르고 가리키는지 말해 봅시다.

2. 한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호칭과 지칭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회사의 조직과 업무에 따라 호칭과 지칭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회사 의 직책과 직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회사에서 호칭/지칭 유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듣고 말하기(2)

■ **다음을 듣고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획실장 : 다음 주에 예정된 신제품 발표회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 : 김 팀장, 신제품 출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팀장 :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판매촉진 계획을 해당 부서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광고 시안도 완성되어서 내일 대표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 이 팀장, 신제품 발표회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팀장 : 지금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많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 참석자가 확정되는 대로 나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박 상무, 신제품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 상무(공장장) : 네, 출시하는 날까지 계획된 물량의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 진행은 누가 했습니까? 회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2. 대표이사는 아랫사람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3. 김 팀장은 대표이사를 어떻게 가리켰습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휘와 표현

주제 관련 어휘

■ 다음을 익히고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팀장	대표이사	공장장	사원	실장	과장	대리

1. 박 상무는 공장의 책임자입니다. (　　)
2. 윤하영 씨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입니다. (　　)
3. 김이수 씨는 마케팅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　　)
4. 이보영 대리는 내년에 (　　)(으)로 승진합니다.
5.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은 (　　)입니다.

본문 어휘

■ 다음을 익히고 (　　)에 알맞은 단어를 쓰십시오.

광고 시안 / 신제품 발표회 / 판매촉진(판촉) / 출시

1.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처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런칭'이라고도 한다. (　　)

2. 상품광고 제작의 최종 단계로 방송 또는 신문 게재 직전 단계를 말한다. (　　)

3.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광고, 홍보, 인적판매 등이 있다. (　　)

4. 새로운 제품을 공개적으로 처음 알리는 행사로 주로 언론사 기자 혹은 VIP 고객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행사이다. (　　)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법과 표현

1 A-(으)ㄴ/ V-는 편이다.

'(형용사) -(으)ㄴ/(동사)-는 편이다' 는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쪽에 가깝다거나 어떤 쪽에 속한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가. 지하철이 붐비네요. 나.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붐비는 편이에요 - 아침보다는 저녁에 일이 더 잘 되는 편입니다.

■ 제시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후덥지근하다	들다	먹다	사용하다	하다

(보기) 부지런하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편입니다.

1.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많이 _____

2. 장마철에 한국의 날씨는 _____

3. 저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_____

4. 아침에는 밥보다 빵을 즐겨 _____

5. 마케팅팀은 야근을 자주 _____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법과 표현

2 (동작동사) -는 대로

'(동작동사) -는 대로'는 앞의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때 바로, 그 후에 곧, 즉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 1. 회사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 내일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3. 대표님이 오시는 대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보기와 같이 '-는 대로'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회사에 출근합니다. / 즉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출근하는 대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1) 행사가 끝나다. / 식사를 합니다.
⇒ _____

2) 이사님이 도착하시다. / 회의를 시작합니다.
⇒ _____

3) 상품이 입고되다. / 배달을 합니다.
⇒ _____

4) 월급을 받다. / 가족에게 송금하다
⇒ _____

5) 여름휴가가 시작되다. / 베트남에 갑니다.
⇒ _____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읽고 말하기(1)

호칭어는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을 의미하며 지칭어는 대화 중 자신이나 상대방 혹은 제3자를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지칭어는 상대의 직함과 연령, 상대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사용되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말을 골라 쓰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직함에 '-님'을 붙여 '부장님' 또는 '팀장님'처럼 부르고 가리킨다. 그리고 부장이나 팀장이 여러 명이 한 자리에 있어 꼭 구분을 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팀장님'처럼 직함 앞에 부서를 결합하거나 '성+부(팀)장님' 혹은 '성+이름 부(팀)장님'처럼 이름을 결합하여 부르고 가리킨다.

(1) ㄱ. 부장님, 팀장님
ㄴ. 마케팅 팀장님, 김 부장님, 김일수 부장님

자기와 직위나 직책이 같은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성+직위(책)'를 사용하거나 '성+이름' 혹은 '이름'에 '-씨'나 '-님'을 결합하여 'OOO 씨(님)'로 하거나 'OO 씨(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2) ㄱ. 이 부장, 이 팀장, 이영호 부장, 이영호 팀장
ㄴ. 영호 씨, 영호 님, 이영호 씨, 이영호 님
ㄷ. 이 부장님, 이 팀장님, 선배님, 이 선배님, 이영호 선배님, 이영호 씨*
ㄹ. 선배, 이 선배, 이영호 선배

직위(책)는 같지만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성+이름+씨'로 부르고 가리키기는 어렵고 (2 ㄷ)의 예와 같이 '선배님' 이나 '성' 혹은 '성+이름'을 '선배님' 앞에 붙여 부르거나 가리킨다. 나이가 많더라도 친한 사이인 경우 (2 ㄹ)의 경우처럼 '님'을 생략하여 부르고 가리킬 수도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읽고 말하기(2)

상사가 아랫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직함이 있는 경우에 '성+직위(책)' 또는 '성+이름+직위(책)'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킬 때는 'ooo 씨(님)'를 쓴다. 직위(책)상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성+직위(책)', '성+이름+직위(책)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3) ㄱ. 이 부장, 이 팀장, 이영호 부장, 이영호 팀장
ㄴ. 영호 씨, 이영호 씨, 이영호 님
ㄷ. 이 부장님, 이 팀장님, 이영호 부장님, 이영호 팀장님
ㄹ. 영호야*, 이 씨*

(3 ㄷ)은 서열 상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 부르고 가리키는 형식이다. (3 ㄹ)에서처럼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라도 'oo아/야' 한다거나 'o 씨'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적인 직장에서 'oo야'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성+씨' 표현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1. 호칭어와 지칭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 대화 상대방을 부르거나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3. 한국 기업에서 직장 상사를 어떻게 부르거나 가리킵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제와 활동(1)

Ⅰ. 회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호칭어, 지칭어를 익힙시다.

관련 표현

(1)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 부장님, 실장님 • 김 부장님, 김 실장님, 김일수 부장님, 김일수 팀장님 • 마케팅실장님, 기획실장님	(3) 상사가 아랫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 이 과장, 이 팀장, 이영호 과장, 이영호 팀장 • 영호 씨, 이영호 씨, 이영호 님
(2) 같은 직위(책)의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 이 과장, 이 팀장, 이영호 과장, 이영호 팀장 • 이 과장님, 이 팀장님, 이영호 과장님, 이영호 팀장님	(4) 직위(책)이 없는 동료나 선배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 영호 씨, 영호 님, 이영호 씨, 이영호 님 • 선배님, 이 선배님, 이영호 선배님,

Ⅱ. 위의 표현을 이용하여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직장에서 상사인 실장(40대)과 팀장(30대)의 대화]
실장: (이 팀장 / 이 팀장님), 어제 보고서 작성 때문에 야근했지?
팀장: 네, (선배님 / 실장님 / 김 실장). 오늘 일찍 퇴근해서 쉬어야겠습니다.

2. [친한 직장 동료들의 대화, 두 사람 모두 30대 대리이다]
박인수 대리: (김 대리 / 김 대리님), 오늘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장소가 어디야?
김기영 대리: 회사 건물 앞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한다고 들었어. (박 대리 / 대리님)는(은) 당연히 참석할거지?

3. [대표이사(50대 초반)와 신입사원(20대)의 대화]
신입사원: (대표(이사)님 / 최 대표이사님 / 최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대표이사: 아, (김 사원 / 김민수 씨)? 어서 오세요. 새로 맡은 일은 어렵지 않은가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제와 활동(2)

4. [실장(40대)과 김영호 사원(20대)의 대화]
가. 실장님, 그 서류 여기 (있어/ 있네/ 있어요/ 있습니다).
나. 김영호 씨, 보고서 (가져와/ 가져오게/ 가져 오세요/ 가져 오십시오)

Ⅲ. 역할극

세 사람씩 팀을 만들고, 각각 부장, 과장, 대리의 역할을 맡아 <보기>와 같이 상황 역할극을 해 봅시다.

보 기

회의 안건		신제품 '탈모방지 샴푸'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매체 선택 (광고 매체는 TV광고와 온라인광고 중에서 선택)
역할	부장	• 광고팀 팀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
	과장	• 탈모 환자가 많은 실버세대 수요층을 고려 • 전통 광고매체인 TV광고 선호
	대리	• 젊은층 탈모 환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 • 인터넷 검색광고 및 SNS광고 등 온라인광고 선호

팀별로 회의 결과 발표하기

1. 어떤 결론에 도달하였나요?

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의 기업문화

직급 체계의 파괴와 호칭의 단순화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은 전통적인 서열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직급 체계의 파괴와 호칭의 단순화이다.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직급 체계를 없애고, 'ooo 님' 또는 'ooo 씨'로 호칭을 단일화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기업에서만 시도되었던 직급 파괴 움직임은 최근 삼성전자, 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SK는 2006년부터 팀장, 실장, 본부장 등 직책으로만 호칭을 부르고 직책이 없는 직원들은 모두 '매니저'로 단일화했다. 이러한 수평적 호칭을 통해 상하·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다.

CJ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00년부터 임직원 호칭을 'ooo 님'으로 통일했다. CJ그룹은 직급 파괴 이후 토론이 활발해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크게 환영받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월부터 기존의 7단계(사원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로 나뉘었던 수직적 직급 체계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의 약자인 CL1~CL4 4단계로 단순화했다. 임직원 간 공통 호칭은 '홍길동 님'처럼 'ooo 님'을 사용하기로 했다. 단 각 조직을 이끄는 팀장, 그룹장, 파트장, 임원 등은 직책에 '님'을 붙여 '팀장님'식으로 부른다.

LG전자는 2017년 7월부터 연구원을 포함한 사무직 직급을 기존의 직위·연공 중심의 5단계에서 사원→선임→책임 3단계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러한 직급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직급 파괴와 호칭 단순화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열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의 변화가 어떤 성과를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다.

_ 중앙일보(2017.6.25.), 한국경제매거진(2017.2.22.)에서 요약·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결론

본 연구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호칭어, 지칭어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호칭어를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 '지칭어를 화자가 대화 중 자신, 대화 상대방, 제 3자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였다. 또한 호칭어와 지칭어의 유형을 '직함형 호칭어·지칭어, 이름형 호칭어·지칭어, 일반 명사형 호칭어·지칭어, 대명사형 호칭어·지칭어, 친족형 호칭어·지칭어, 주의환기형 호칭어·지칭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함형 호칭어·지칭어를 '직위형 호칭어·지칭어, 직책형 호칭어·지칭어, 직업형 호칭어·지칭어'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호칭어·지칭어가 비즈니스 한국어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들에서 제시된 호칭어, 지칭어의 유형과 종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호칭어, 지칭어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제시된 호칭어, 지칭어가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목적에 맞지 않게 직함형보다 이름형 호칭어, 지칭어 비중이 높다는 점, 셋째,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가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호칭어, 지칭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넷째, 제시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도 같은 직장 내의 구성원들과의 대화 상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해 다양한 형식의 호칭어, 지칭어 학습에 한계를 노출 했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습득을 학습 목표로 하는 별도의 단원 구성을 제안하였다. 단원의 내용으로는 먼저 단원의 대화 지문은 직장 내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제시, 적절한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 사용을 위한 선택 규칙의 제시, 문법 항목에서는 호칭어, 지칭어와 호응되는 경어법의 연습,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적절한 호칭어와 지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는 과제 활동의 도입,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시키는 문화 교육, 그리고 마무리 과제로는 학습자 모국의 기업과 한국 기업의 문화적 차이를 쓰기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제안하였다.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의 분석과 개선 방안에서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2차 자료나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부분은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참고 문헌>

■ 단행본

왕한석 등(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서울: 도서출판 역락.

이익섭(2009). 『사회언어학』. 개정판. 서울: 민음사.

■ 분석 교재

김선정・강현자・박성태(2014).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1』. 서울: 한글파크.

김선정・김성수・우창현(2014).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2』. 서울: 한글파크.

김선정・허용・강현자・박성태(2013).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3』. 서울: 한글파크.

김선정・허용・김성수・우창현(2013). 『프로 비즈니스 한국어 4』. 서울: 한글파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비즈니스 한국어』.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박창원 등(2010). 『성공의 지름길, 비즈니스 한국어 (이화 한국학 국제화 총서 1)』. 파주: 지문당.

■ 계속간행물

강소산・전은주(2013).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5, no.2, 한국어교육학회, pp.363-389.

강영(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비교한국학』, 14, no.2, 국제비교한국학회, pp.31~58.

고성환(2009). "한국어 교재의 호칭・지칭어." 『통합인문학연구』, 1, no.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pp.29-57.

김혜영(2013). "초청특강: 담화 문맥에서 지칭어와 호칭어의 사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pp.29-3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갑수(1989).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19, 국어연구소, pp.10-32.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 no.2, 한국사회언어학회, pp.507-527.

손춘섭(2010). “현대 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33, 한국어의미학회, pp.95-129.

유원호・채서영(2011),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직업명.”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147-170.

이윤진(2006).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7, no.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87-306.

이미혜(2008). “국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9, no.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21-347.

이해영(2009). “외국인의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연구.” 『한국어교육』, 20,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03-228.

전혜영(2005).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Korean 연구와 교육』, 창간호,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pp.121-135.

채서영・유원호(2008). “영어의 타이틀과 한국어의 직함 호칭어: 조건과 발달과정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 no.1, 한국사회언어학회, pp.317-340.

한갑수(1989). “호칭과 칭호.” 『국어생활』, 19, 국어연구소, pp.74-83.

Ervin-Tripp, Susan M.(1969). “Sociolinguistic Rul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pp.91-165.

Brown, R. and F. Marguerite(1961). “Address in American English.”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no.2, pp.375-385.

Brown, R. and A. Gilman(1964).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Style in Language*, ed. by T.A. Sebeok, pp.253-276, Cambridge : MIT Pres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학위논문

박상천(2004). “한국어 호칭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이민(2008). “한국어 호칭어· 지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이선화(2002).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황보나영(1993). “현대 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문기사

“대기업 ’부장’·’과장’ 없어진다…직급 떼고 호칭파괴.” 『매일경제』, 2017.6.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73197> (2017년 10.18. 검색)

“삼일회계법인의 호칭 파격, 임원은 ’파트너’ 직원은 ’선생님.’ ” 『매일경제』, 2017.6.2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27576> (2017.10.12. 검색)

“대기업 직급 떼고 호칭파괴···삼성이어 LG 내달 1일부터 직급개편.” 『중앙일보』, 2017.6.25, <http://news.joins.com/article/21697596> (2017.10.12. 검색)

“재계에 부는 계급장 떼기···사장도 대리도 oo님.” 『한국경제매거진』, 1108호, 2017.6.25,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l=1&nkey=2017022001108000171&mode=sub_view> (2017.10.18 검색)

Collection @ chosun